ITT 전문번역\_인문사회\_영한번역 HW2 22기 김수연

Only now, as we approach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United Kingdom’s referendum on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are the implications of leaving the bloc finally sinking in. One indication is the launch, at the end of January, of a parliamentary inquiry into London’s prospects as a financial center. This investigation is a response to prominent financial firms voting with their feet. Goldman Sachs, JPMorgan, Morgan Stanley, and Citigroup have moved nearly $300 billion of balance-sheet assets from London to Frankfurt, and Barclays has won approval to move another $215 billion to Dublin. BNP Paribas, Crédit Agricole, and Société Général have transferred 500 staff from London to Paris. HSBC has shifted ownership of many of its European subsidiaries from the UK to France.

Anxiety is heightened by uncertainty about the post-Brexit regime. Prime Minister Theresa May’s government entered negotiations confident of obtaining passporting rights – authorization to provide services throughout the EU without the further approval of host-country regulators – for UK banks. But had it looked more closely, her government would have seen that the EU has granted a non-member passporting rights only when the country – Norway, for example – belonged to the European Economic Area.

현재로선, EU회원들에 관한 영국 국민 투표가 3주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곳을 떠날 수도 있다는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그중 하나가, 1월말에 있을 런던의 전망에 대한 청문회가 금융 중심지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저명한 금융회사들이 발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그리고 시티그룹은 3,000억 달러 가까운 대차대조표 자산을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했으며, 바클레이스는 2150억 달러를 더블린으로 이전하는데 승인을 얻었다. 비앤피파리바, 크레디트 아그리콜,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 등은 런던에서 파리로 직원 500명을 옮겼다. 에이치에스비씨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많은 유럽 자회사들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브렉시트 이후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테레사 메이 총리 내각은 영국 은행들에 대한 주최국 규제에 당국의 추가 승인 없이 EU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접근법에 대한 허가를 받을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의 정부로 예를 들면 노르웨이가 유럽 경제 지역에 속할 때만 EU가 비회원국 시장 접근을 허가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